

추운날씨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溫情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전달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담긴 성금과 물품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12월6일 주부명예기자단 광복준 영중면 지부장은 그동안 꾀소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최근 소마리가 질병에 걸려 3마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중면 성동리 김상주씨(72)택을 방문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라고 위로했다.

또 광 지부장은 영중면 성동리에서 79세 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시각장애3급 장애인인 최덕현씨(47)택을 방문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했다.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조은혜(윤담초

4년) 부단장이 추천한 유재호(6)어린이 할머니택을 조은혜 부단장 어머니가 방문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유재호 어린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김형석 총무가 추천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살고 있는 김현정(65)할아버지에게 광복준 주부명예

기자단 영중면지부장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중풍을 잘 이기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했다.

또 이동면 도평리에서 콘테이너에 살고 있는 서금식(72)할머니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했다.

생활환경이 어려워져 아들 품을 데리고 도평리로 이사하고 있는 송승기씨(49)에게도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김중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 5명(하순애, 정설자, 박보배, 안정순, 박성대)을 찾아가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했다. 이같은 지원을 받은 어려운 이웃들은 "포천신문사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명예기자단 광복준 영중면지부장이 이동면 도평리에 주부명예기자단 광복준 영중면지부장이 이동면 도평리에 조사위원회 김중현 고문이 소흘읍 초가팔리 상운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금식 할머니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살고 있는 송승기씨를 대신해 이동 도평교회 목사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있다. 김현정(65)할아버지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있다. 김형석 총무가 추천한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살고 있는 김현정(65)할아버지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있다.



주부명예기자단 광복준 영중면지부장이 영중면 성동리에 주부명예기자단 광복준 영중면지부장이 영중면 성동리에 학생명예기자단 조은혜 부단장의 어머니가 이동면 사직리에 살고 있는 유재호 어린이의 할머니택을 방문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있다. 김현정(65)할아버지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위로했다. 김현정(65)할아버지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3켤레를 전달하고 있다.

독자견의 김정석

“불법 광고물 좀 철저히 단속해 줘요”

최근 들어 환경을 아주 어지럽히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광고 전단지들을 포함한 무질서한 광고 스티커다. 광고의 내용은 중국집과 치킨 집, 피자 집 등 주로 음식점이 많고 대리운전 홍보물이다 요즘은 학원광고까지 더해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갖가지 광고 전단이 아무 곳이나 어지럽게 나붙어 있어 우리의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정신환경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볼까봐 두려울 정도의 낫뜨거운 광고전단지도 주책가에 뿌려져 당혹감을

감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거기가 이런 광고는 전봇대, 아파트와 공공건물의 외벽, 개인 주택의 대문 등 눈에 띄는 곳이면 어떠한 장소라도 가리지 않는다. 더욱이 광고 스티커 뒷면에는 끈끈한 접착물이 붙어 있어 일단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일도 여간 힘들지가 않다. 결국 이런 광고전단은 모두 무질서한 불법 부착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재된 전화번호로 광고주의 소재를 밝혀 정해진 법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강력히 처벌한다면 무질서한 도시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촌감리교회 제11회 자선음악회 개최

내촌감리교회(담임 김창성 목사) 음악회를 열어 연말연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내촌감리교회는 11월29일 오후6시 제11회 자선음악회를 열어 연말연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이날 자선음악회는 김창성 담임목사와 문화부장 이철호 권사의 기획으로 진행됐다. 저물어 가는 한해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일을 자선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이번 자선음악회를 개최한 내촌감리교회 김창성 목사는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전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지혜가 담긴 인생의 도움말들



이보용 본지사리위원장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내가 남한테 던지는 것은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달릴 준비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옷을 벗어 던지듯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잡념을 벗어 던져야 한다. 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도 같다. 자신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벌써 높은 곳에 있다. 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통 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운다.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적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느낀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은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마음이 원래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성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 황금의 빛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욕의 불이 마음에 검은 그늘음을 만든다. 두 도둑이 죽어 저승에 갔다.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 자복했 고,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 자복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어 저승에 갔다. 한 남편은 아내의 소망이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lush속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교훈에도 귀 기울입니다. (문의 011-342-5834)

시인의窓

중(鐘)

양 준 호(시인)

수염은 깎았니
소녀의 눈동자에 귀 기울이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숫말이 항얼어는 바다는
비틀거리고
울어라 종아, 종아 울어라
문득
꽃의 렌즈에 사로잡힌
새의 눈빛
비틀 비틀
나의 하늘가를 돌다가 간다.

〈감상노트〉

시간은 종소리를 밀고 종소리는 시간을 민다. 사람은 사람으로 시간의 표를 지우고 다시 적는다. 길가에 풀들은 햇살을 먹고 살다가도 죽는다. 또 달력을 넘기는 마음으로 종

의 실과심을 찌르며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할까. 종의 노래가 사람의 미래가 되고 사람의 노래로, 사람의 피로, 평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 안 익 수(시인)

2007 포천시 무대예술진흥사업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땅 끝이 아닌 세상의 끝에서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삶 속에서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우리네 서민들의 재미있고 훈훈한 사랑이야기입니다. 본 공연은 연출가 이희용이 추구해온 가슴 저미는 서민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아무리 외쳐대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 매서운 바람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네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건디는 가슴 벅찬 연극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공연을 가족과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07년 12월 16일(일) 오후 2시, 7시
-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 ♣ 주최 : 포천시 예총
- ♣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신문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예술봉사단

※ 공연 30분전에 오셔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하며 좌석배정은 선착순입니다.



스텝

■ 기획 · 연출: 이희용 ■ 작가: 김태수